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9. 29.(목) 9:30	배포 일시	2022. 9. 29.(목) 8:30
-------	----------------------	-------	----------------------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이상규 (044-215-8720)
		담당자	사무관 유연정 (yjyou1@korea.kr)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발표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29(목) 9:30 용산 그랜드하얏트에서 진행된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발표하였다(붙임).
- 올해 6회째를 맞이한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은 기획재정부와 IDB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남미 경제협력 행사로, 비즈니스 포럼, 1:1 비즈니스 상담회, 분야별 워크숍, 스타트업 피칭데이로 구성되어, 양 지역 간 협력방안 논의 및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할 목적이다.
-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한-중남미 경제협력 방향으로 ①디지털화 기반의 맞춤형 협력, ②민간분야 역량 강화 지원, ③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분야 다양화를 언급하면서,
 - 협력을 위한 EDCF 협조융자, 신탁기금을 통한 기술협력,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등 다양한 협력수단의 유기적인 활용 및 기업·기관·교육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 이날 개회식에는 한국과 중남미 정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하여 총 350여명이 참석하여 개회를 축하하였다.

[붙임] 국제경제관리관 개회사



-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실제 개회사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 회 사

2022. 9. 29.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김 성 욱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Buenos Dias(부에노스 디아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입니다.

베닝뇨 로페즈 베니테스 미주개발은행 부총재님,
윤희성 수출입은행장님,
유정열 코트라 사장님,
여러 귀빈 여러분들과 기업인 여러분,
만나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1년 담당 과장으로 제2차 비즈니스 서밋을 준비했습니다.
10년여의 시간이 지나 이 행사가
포럼, 세미나,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아우르는
협력의 장으로 성장한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협력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와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 그간의 협력 성과

한국과 중남미는 정서적 동질성, 발전경로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서로 동기를 부여해 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의 파트너라 생각합니다.

‘05년 한국의 IDB 가입 이후 한국과 IDB는 사업발굴, 자금지원, 지식공유, 인적 인프라까지 전방위적 협력의 기반을 갖추어 왔습니다.

IDB 내 3명에 불과하던 한국인 직원은 40여명으로 늘어났고, KSP 공동컨설팅 사업은 54개가 진행되었으며, EDCF 협조융자 퍼실리티도 작년 8월 3차로 갱신하였습니다. 2.5억불에 달하는 한국 신탁기금 4개를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580여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 결과 지난 17년간 양 지역 교역규모는 3배 이상, 투자는 5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그간 한국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고, 한-멕시코 FTA 체결 협상도 14년만에 재개하는 등, 무역협정의 체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중남미 양 지역의 협력은 지난 17년간 양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해왔다고 할 것입니다.

3 향후 협력 방향

귀빈 여러분,
우리는 그간의 양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으로도 한 차원 높이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3가지의 협력 방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데이터, 스마트화, AI 활용 등
디지털화 기반의 맞춤형 협력입니다.

중남미는 세계 전자상거래의 37%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사이버보안 및 플랫폼, 핀테크 기술 수요가 증가중이며
국가부채 개선을 위한 재정의 스마트화 등
공공영역의 각종 시스템 도입 추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높은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중남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DCF 협조유자를 통해
에콰도르 국·관세시스템 개선에 3500만불을 지원하였으며,
연내에는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IDB간의 MOU 체결,
신탁기금 기술협력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 확대 등을 통한
민간분야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IDB는 최근

새로운 재원조달과 민간자원 활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기업, 인프라 기업,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점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양 지역 기업들의
밀접한 네트워킹과 기술교류 지원의 장을 마련하고,
한-중남미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방안 및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분야의 다양화입니다.

그동안 양 지역간의 협력은
원자재, 농산품, 제조업 등의 교역을 중심으로
보다 단순한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인
디지털화, 농업혁신,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 등
다양한 차원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신탁기금, 협조융자를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며,
KSP를 통해 지식적 차원의 협력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역량있는 민간기관들에게
중남미 협력사업 참여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4 맺음말씀

귀빈 여러분!

중남미 격언에

“두 개의 눈보다 네 개의 눈이 더 잘 보인다”

(Mas ven cuatro ojos que dos, 마스 벤 꾸아트로 오호그 케 도스)

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혼자보다 여럿의 시각으로 같이 볼 때
본질을 파악하고 더 나은 해결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격언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어느 한 국가의 역량으로는
독자적인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를 합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역량을 모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무차스 그라시아스)!